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5)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과거 국명이 자이르(Zaire)였던 이 국가는 브라자빌(Brazzaville)에 수도를 두고 있는 콩고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과는 다른 나라이다.

지난 15년 동안의 내전으로 5백만 명의 주민을 잃었다. 콩고의 아이들은 폭력 범죄 단체에 의해 살해되었고 주민들은 수천 명 단위로 학살되었으며, 수많은 여인들은 강간을 당했다.

내전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전의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전 당시의 잔악 행위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콩고의 내전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 뚜렷한 지도자도 없었으며 내전의 중심지도 없었다. 학살이 일어났지만 2차 대전 나치의 유대인 학살처럼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도 않았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자가 분명치 않았다. 내전의 많은 희생자들은 전쟁이 가져온 인간의 광기의 피해자였다.

9개 국가가 참여한 가장 큰 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이 투입되었지만 콩고에서 벌어진 인간의 폭력성은 다른 전쟁을 능가했다. 유엔 파견군은 서부 유럽과 맞먹는 광활한 콩고의 영토에서 20여 반군 단체들이 각각 벌이는 40-50개의 국지전에 개입하여야 했다.

이러한 전쟁들은 분명한 하나의 대표되는 명분도 없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탐욕이 추하게 뒤섞여 있을 뿐이었다.

1994년 이웃나라 르완다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이 콩고에 영향을 끼쳤다. 1996년 콩고의 동부에 있는 한 반군 단체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세력이 약해진 서부에 기반을 둔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1,600킬로의 정글을 헤치며 진군했다.

“20여 반군 단체들이 각각 벌이는 국지전은 명분도 없었다. 권력에 대한 욕구,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탐욕이 추하게 뒤섞여 있을 뿐”

“성직자들이 살해되었고, 수녀들이 강간당했으며, 배 속의 아기까지 꺼내어져 죽음을 당했다.”

이 와중에 수만 명의 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수도 킨샤샤(Kinshasa)를 점수한 반군 단체의 지도자 로렌트 카빌라(Laurent Kabila)는 그가 끌어내린 독재자 모부투처럼 반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국가의 재산을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콩고민주공화국, 내전과 인간의 잔혹성

내전동안 50만명 여성들 강간과 유린 ... 폭력성은 다른 전쟁 능가



카빌라의 통치아래 콩고는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군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카빌라는 결국 2001년 자신이 양성했던 한 소년병의 총에 맞아 죽었다.

정권을 물려받은 카빌라의 아들은 콩고 동부의 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당시 콩고의 동부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충돌과 이웃 나라 르완다의 개입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콩고 내전 동안 50만 명의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어린 소녀들과 임신부들이 잔혹하게 유린당했다. 주민들도 처참하게 죽어갔다. 반군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면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폭력의 희생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다. 성직자들이 살해되었고, 수녀들이 강간당했으며, 배 속의 아기까지 꺼내어져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콩고의 내전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포악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출처:선교뉴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

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13-18)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열린 무덤같이 사망과 저주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콩고 영혼들이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저주와 악독으로, 피 흘리는 발로, 파멸과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음을 보시옵소서. 권력에 대한 욕구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탐욕이 추하게 뒤섞여 있는 콩고 땅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주의 용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망의 두려움에 처한 이 땅의 영혼에게 친히 복음이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그쳐지는 그날을 속히 이루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기도24:365제곱]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4면**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프로그램, 강사진 윤곽 드러나”



▶ **인터뷰 5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궁금했어요”
- 유재덕 집사



김용의 선교사 컬럼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라도..”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큼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천국에 대해 ‘누가 크냐’라는 세상의 가치로 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 다니고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우울해 하고, 비참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여기서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반면,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을 통칭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적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에 언제든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준 지식,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절대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



하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세상적 가치, 자아 중심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천국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말과, 관계하는 법과,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

복음을 전부 받고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배우자, 동역자, 리더로 얻는다면 주님이 오신 것과 같은 효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 아이가 된 사람은 천국의 VIP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 아이인 우리의 자녀들, 심어 주고 넣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 세대들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음의 용사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5-7 상반절)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 단단하게 반응하도록, 복음을 살아내는 일꾼이 되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전부 선택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을 통해 온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떡

‘나를 따르라!’

로마/베드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21:19**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에 빠졌다. 얼마 전에 세 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질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 하나하나의 의미를 심사숙고 하듯이 천천히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세 번째로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 아무 데나 다녔지만,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옷을 입혀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요 21:15-19 참조)

베드로는 70세가 되었을 때 네로에게 박해를 받았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친구들과 동료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도망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권유를 받아들여 도망치기로 했다. 그런데 로마를 빠져 나가려고 성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베드로는 즉각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물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는 중이다. 나를 따르라!”

이에 베드로는 발길을 돌이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따라갔다. 그는 네로를 대면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자기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청했다.

이 전승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두 번 달리셨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전승은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절실히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겪으신다.

당신 삶에 아픔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아픈가? 예수님도 아파하신다. 더욱이 그 아픔을 말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당신의 무거운 짐과 슬픔을 그분께 맡겨라!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이슬람의 거리에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이야기를 전하다”



- 탄자니아 도시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벽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루샤 도시의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다. 교회 벽에 그려진 몇 편의 벽화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중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이슬람 사원 근처의 이곳 교회들은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 벽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할 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을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신앙고백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12-13)

사진 : WMM / 글 : 탄자니아 '열방의 영광' 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교회 개척 전도여행을 다녀오다 2

정말 낙심될 때 들려주신 음성...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서혜진 선교사 (티앤알미션)

머물고 있던 대구 도심의 한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갔다. 지나는 동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다. 함께 여행에 참여한 어린 예찬(7)이도 길거리 전도에 한 몫을 했다. 성인이 주변 받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예찬이가 가서 전도지를 건네 줬더니 귀엽다면서 받아갔다. 이 전도지를 받고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께 반응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돌렸다.

버스를 타고 공원에 도착할 무렵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두 번의 차비로 재정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오주여... 이 재정이 끊어지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며 돌보시는지 정말 실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리도 돈이 바닥을 보이는 것이 마냥 아쉬운 것일까요.’ 속으로 주저리, 주저리 주님께 이야기했다. 드디어 신나는 점심식사! 공원 파출소에서 받아온 시원한 물과 빵과 미숫가루와 초콜릿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카스텔라 종이 붙어있는 빵 조각까지 짹짹 씹어 먹는 팀원 유전도 사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낱알 찹쌀 조금씩 아껴먹는 귀여운 예찬이. 마냥 천진난만하게 맛있게 먹는 예주. 빵 한 개, 싱겁지만 시원한 미숫가루와 물로 이뤄진 단순한 식사였지만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전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외치며 쉼 없이 34도를 웃도는 날씨를 뚫고 주님은 공원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셨다. 공원에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다. 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전도지를 짹짹 찢어 버리는 20대 여학생. 전도하려면 뭐라도 주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도 외의 것에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 아예 전도지 받는 것조차도 손사래 치며 거부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 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음에 쓸쓸하였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척 전도여행이란 말인가? 같이 움직이는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뭔가 나이스하고 은혜로운 회심도 조금은 일어나 주고 해야 이번 전도여행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이 들었는데. 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은 뭐지요? 낙심의 굴로 슬그머니 들어가려는 나를 발견할 그 때,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기 시작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 구절이 나의 심령을 강타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낙심 되고 포기하고 싶던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선포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여 나아갈 것. 세상이 나에게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기에 이제 십자가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케 하셨다. 그때를 기점으로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주셨고 말씀이 힘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어김없이 둘째 날 밤이 다가왔고 아이들만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숙소를 찾아야만 했다. 아파트 경비실에 문의해서 경비실에 남는 방 한 칸 정도는 없는지 혹은 정자가 있던데 그곳을 오늘 밤 만이라도 사용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기로 했다. 사모님, 예찬, 예주, 나 4명에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다. 경비아저씨는 냉정하게 경비실 안에는 방이 없다고 거절하셨다. 정자라도 안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누군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걸 보면 반드시 문의가 들어 올테니 안된다고 거절하셨다. 덧붙여 남편들은 어디 있는데 여기서 잘 곳을 찾느냐고 짜증을 내셨다.

오늘은 허락하심이 여기까지라고 여기고, 결국 동서남북 사면이 다 뚫리고 위도 다 트인 조희대에서 모기에게 뜯기는 두 번째 밤을 시원하게 보내게 하셨다. 모기와외의 전쟁은 변한 것이 없었고 새벽에 간간히 깰 때마다 모기에 물리는 아이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부채질을 해주었다. 깊이 잠이 들지 못하는 게 더 이상 고문처럼 느껴지기보다 그냥 나의 일상의 삶처럼 생각되어졌다.

다음날 오전. 지하철 역 출입구에서 전도를 하기로 했다. 각자 한 출입구씩 담당해서 2시간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도지만 나눠드리다가 이것이 그분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텐데, 복음도 같이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

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순간 고민될 때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났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말하십시오. 29년 평생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입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순간 두려움과 창피함이 지나갔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거침이 되지 못했다.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으로 사는 길 오직 믿음 아닌가? 무엇을 전할까 근심했던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닌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분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기도하며 출입구 쪽으로 나갔다.

첫 번째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왜 허는 꼬이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경한 아니, 진정한 삶의 목적, 아니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바쁘게 계단을 오르는 그분 옆에 같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등에서는 땀이 빼질 빼질 났다.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계속>

선교통신

수단, 남부분리 이후 여전한 혼란 상태

내년 3월 이후 추방 및 탄압이 본격화 예상



지난 7월 수단의 남부지역이 분리된 이후 수단은 동부, 서부, 중부에서도 내전의 조짐이 일어나 지금도 혼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단 이외에도 변화를 겪은 나라들이 많아 오히려 조용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각 지역의 세력들이 일어나 정부군과의 내전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 카르툼까지 올라와 분리를 넘어 전복까지 시키려고 하지만, 아직 정부군의 힘에 크게 미치지 못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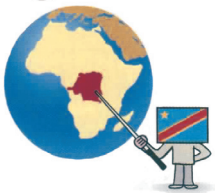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전을 남수단이 독점하면서 북수단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의 주축이었던 중국 정부회사들과 유엔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이 대부분 철수를 하고 있어 내수 경제 뿐 아니라 화폐의 가치도 떨어져 물가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환율의 경우, 2010년 여름 US달러 1달러에 2.5수단파운드 수준에서, 현재 3.5수단파운드로 40% 이상 뛰었다.

한편, 이슬람권인 북수단 지역은 내년 3월 이후 강한 이슬람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추방 및 탄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되면서 선교관계자들이 긴장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면에 이어 - 콩고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교회

Congo(DRC)



- 면적 234만5천km²(23.7배)
- 인구 6천783만(1.4배)
- 도시화 35.2%
- 종족 반투 80.2% 수단 9.8% 아다마와 우방기 4.3% 닐로틱 1.5% 피그미 1.5%
- 종교 기독교 92.2% 토착종교 5.1% 무슬림 1.9%
-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 기획 - 다시복음앞에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프로그램, 강사진 윤곽 드러나”

다양한 영역의 복음의 행진 ... 목회 및 선교 현장, 신학적 조명 등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자비량으로 참석 ... 풍성한 은혜 기대

오는 12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재천명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프로그램과 참석할 강사진이 확정됐다.

복음과 기도를 삶과 사역의 중심가치로 삼은 교회 및 기독교단체들의 연합체인 복음기도동맹이 '다시복음앞에 오직복음으로'를 슬로건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의 연합집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복음과 기도로 결론 낸 믿음의 증인들이 국내외에서 사역중인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들이 참여한다. 또 행정 경제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다양한 증인들이 참여해 복음과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나눌 계획이다.

▶복음의 삶을 증언할 강사진과 섬김이 = 매일 새벽 온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온 목회자들이 강단을 연다. 경기도 양평 국수리 한국제자훈련원에서 매주 완전한 복음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30여년간 수만명의 증인들을 배출한 송신호 목사와 미국에서 조기 은퇴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내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사역으로 섬겨온 송천호 목사가 새벽 미명에 복음을 선포한다.

현장에서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할 선교사들도 참여한다.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본부)와 태평양에서 사이판과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중인 권영조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중인 안정규 선교사, 무슬림권에서 사역중인 백부장 선교사가 복음의 길을 증언한다.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신학자들에 의해 진리의 빛이 조명된다. 류영렬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박영철 교수(침례신학대학 실천신학), 유영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가 참여한다.

목회현장에서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도 참여한다.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목숨 건 목회 현장을 실감나게 제시할 전망이다.

또 복음기도동맹 선언문 제정에 참여한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는 다시복음앞에서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초대인 십자가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선포한다.

이번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에는 문화 예술 영역에서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참여한다. 먼저 예배인도에는 복음과 기도로 다시복음앞에 서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인 리턴이 섬긴다. 또 문화행동 아트리는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극화한 '가스펠'을 통해 오직 예수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을 노래하게 된다.

▶특별 이벤트 = 이번 연합모임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집회 이후 복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음기도동맹 회원 단체들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외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사역현장에서 장단기 등 다양한 형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복음기도동맹 소속 단체들은 부스를 마련, 사역소개 등으로 각 영역별 동맹군을 일으키게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장소로 사용될 선한목자교회는 모임기간 중 본당을 매일 철야기도의 장소로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석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gospelprayer.net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이번 집회는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초대교회가 누렸던 모든 복음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비를 걷는 대신, 참석자나 이번 집회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금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번 집회에 강의로 섬길 강사들도 모두 자비량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651001-01-319982 조완순(복음기도동맹) 문의 : 070-7417-0301



	13일(화)	14일(수)	15일(목)	16일(금)
새벽	다시 그 빛으로 / Return to the Light 새벽 미명, 평생 외길을 걸어온 광야의 소리, 다시 그 복음을 외치다			
	아침 식사			
오전	예배			
	다시 그 나무 아래 / Return to the Tree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된 역사적 증인들을 만나다.			
	다시 그 길 위에 / Return to the Way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증인들이 선포하는 시온의 대로(大路)			
오후	등록	다시 그 진리 안에 / Return to the Truth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신학자들이 명쾌하게 밝히는 진리의 빛.		
		다시 그 목자 품으로 / Return to the Shepherd 선한목자이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종들의 목숨 건 목회 현장		
저녁 식사				
저녁	다시복음앞에 그 문을 열다 / Return to the Gate 양의 문으로 들어가다	예배		다시 삶의 무대 위로 / Return to the Life 뮤지컬 『가스펠』 오직 예수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복음을 노래하다
	예배	오직 그 삶과 피로 / Return to the Bread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초대, 십자가!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 Only for his Kingdom & his righteousness 다시복음앞에 선 우리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이제 왕의 군대로 Raise the banner of the King 오직 이미 승리한 왕의 전쟁에 부름받은 용사들, 향오를 갖추고 대열을 정비해 복음기도동맹군으로 일어서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궁금했어요”

기도동원가의 삶으로 초대받은
유재덕 집사(안산광림교회)

골방에서 골방으로. 안산지역에서 기도품앗이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삶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 유재덕 집사님을 만났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주님의 때에 십자가복음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이후, 기도사명자로 새 삶을 누리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믿음의 이야기가 만남을 통해 불타듯 흘러나왔다.

- 집사님의 요즘 삶을 소개해주세요.

“올해 초 주님께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한 가지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안 빼먹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에서 느헤미야로 서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고 제가 그 기도자를 모으고 기도모임을 인도하겠다는 서원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 수준이 아닌 주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더군요. 안산에서 1년간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느헤미야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인 줄 알고 안산지역을 교구로 삼아 이곳저곳 느헤미야52 연합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죠. 함께 이 일에 동역할 몇 분이 모여 자발적으로 순회기도팀으로 섬기기도 했고요. 낮과 밤 몇 달째 뛰어다니고 기도시간이 비면 꼭 연락이 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깐 나오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웃음).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기도동원가가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의아해 하기도 하고, 남편 없이 아이들만 키우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걱정해 주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 언제부터 이같은 삶을 살게 되셨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대영 권사님(본지 26호 부즈인박스 ‘예수는 나의 힘’ 참조)이라는 분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리시나 하는 생각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문했죠. 그럼 집사님은 확신하느냐? 라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요 물론이죠.”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 그분의 삶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궁금했고, 그렇게 복음 앞에 목마름으로 서게 되었어요.”

-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저를 만나주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만 붙잡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죠. 믿음의 길을 걷던 중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형제를 한 분 보게 됐어요. 열방기도센터에 함께 방문하게 된 때 그 형제는 그 형제 아버님의 기도 시간을 대신 지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 제 24365기도 시간조차 잘 지키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더군요. 저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질문이 생기더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면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남편을 용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늘 어려웠죠. 그때 그 형제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봤어요. 속이 뒤집힐 만큼 현실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다만 옆드려 기도했어요. 때론 졸기도 했죠. 일정한 시간을 남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사실이 동기가 되면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든 열방이든 여지로 기도하기보다는 다만 십자가에 머물러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됐어요.”

- 지역교회에 찾아가서 느헤미야52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나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엘 2장 15-16절에 너희는 나팔을 불어 신랑과 신부를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실망을 경험하기도 해요. 과연 교회들이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젓먹이도 나오고. 신랑과 신부들도 나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요엘 2장 말씀 전체에 아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팔수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요. 주님은 가서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기는 교회인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주셔서 발걸음이 옮겨져요.”

- 열방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누리게 된 은혜가 있을 것 같네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누군가는 꼭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하셨고, 중보기도도 꼭 해왔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처음이라고 고백하셨어요. 나름대로 평생 잘 살아서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평생 한 번도 못했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주님 얼굴 어떻게 보냐’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여든이 넘는 어르신 이 한 번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의 악독함이라고 깨달았다고 안타

까워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곤 기도의 파수꾼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때 정말 내 마음에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그런 고백을 들으면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음식을 전혀 못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아! 나의 양식은 하나님 나라구나. 깨달았죠.”

- 믿음으로 사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텐데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보니 열방을 구하라는 마음과 함께 가정에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부담도 주시더군요. 그 무렵, 한번은 말씀기도학교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진행부에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동비는 허락이 되었는데 남편의 허락이 없어 가지 못하게 됐죠. 왜 가라고 하시더니 못 가게 하시는지 주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홀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요. 내가 만약 말씀기도학교에 갔으면 아마 남편과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죠.”

-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순회기도팀 활동이 수월치 않았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남편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약간은 오기가 섞인 셈이죠. 그리고 푸드뱅크라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먹을거리는 배달하고 남은 음식으로 해결 됐는데 필수품, 차비 등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이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순회기도팀이든 땅밧기를 가든 주님이 부르셨기에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웃리치를 통해 중보기도로 섬기던 시간에는 재정에 대해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 팀장님의 권면을 받고 전심으로 재정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백 속에 주님은 결국 믿음으로 구했을 때 놀랍게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 다른 팀원들도 도전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목걸이부터 자기 것을 팔아 아웃리치의 재정을 채웠던 일 등 주님의 수는 셀 수도 없죠.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을 쓰는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 현재의 삶에 대해 정말 행복하신가요?

“다른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너무 기뻐요. 나의 개인적 문제도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압도되어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내안에 구원해주시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에 압도당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면 끊임 없이 말씀해주시죠. 은혜예요. 어떤 상황이든 부르신 곳이 어디든 달려가요. 돌아보면 전혀 고민 하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무능할뿐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에 말씀하시면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 아쉽지만,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마쳐야겠네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군대 간 아들 이렇게 4식구예요. 남편은 얼마 전 먼저 천국에 갔어요. 최근 막내딸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지난 추석 무렵 음식을 평소답지 않게 많이 먹어서, 과식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빠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에 구멍이 났다며, 자신이 먹을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자리가 너무 커’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 숨이 꼭 막힌 것처럼 밤새 잠을 이룰수 없었어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싸돌아만 다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어. 내가 목마르게 했거든. 내가 채울게”라는 위로를 주셨어요. 요즘 아이와 레슬링을 하며 지내요. 팔아이가 예전에는 군대 간 큰아들이나 아빠랑 매번 엮어뜨리기 같은 걸 하며 놀았나 봐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왜 애를 괴롭히냐고 했는데 그렇게 노는 거였더군요. 요즘 집에 오면 엄청 당해요. 주먹으로 정말 세계 때리는데... 오빠나 아빠는 세계 때려도 괜찮았대요. 저는 그게 안 되서 재미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레슬링을 하며 보내요.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에 복음학교에 가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님의 은혜로 복음선교관학교와 6개월간 합숙하며 훈련을 받는 복음사관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감격하며 달려온 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복음사관학교에서 주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셨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증인된 모습, 사관다운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돌아온 이후 저는 교회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다시 판단하기에 바빴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싫어하며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매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은 저와 교회 지체들을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복음의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막연히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한 형제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장소문제로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민족사랑교회였습니다. 노숙자지역을 하는

기도의 삶 - 느헤미야52일기도 후기

'복음의 영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 '연합'

“그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교회에는 노숙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허락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0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52기도, 복음의 영광!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좋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예배를 드리러 밖으로 나가보니, 노숙인 아저씨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한 많은 노숙인 아저씨들을 보며 '지저분하고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빨리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새벽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외치며 입술로는 신령한 것들을 선포했던 내가, 기도실 문을 열고 세 발자국 걸어 나오니 복음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짝 말라버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 아침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실에서 외친 모습과 지금의 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입술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하던 '복음 따로, 삶 따로'를 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 하나만 가리면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가린 것은 25년 동안 단단히 굳어져버린 나의 '선입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연합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기도하러 갔던 교회 언니와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숙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오셔서 장미꽃을 한 송이씩 건내 주셨습니다.

"아가씨들이니까 한 송이씩 드릴게요. 오는 길에 누가 버린 것을, 드리고 싶어서 주워왔어요"

너무 예쁜 장미꽃.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와 함께 꽃을

받은 언니와 나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부끄러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숙인에 대한 인식들이 꽃을 받는 순간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들은 내가 판단할 이유와 근거도 없는, 우리와 같은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그 때부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교회를 안내해주시고, 기도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섬겨주신 분들. 그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저들이 너보다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숙인 아저씨들이 한 시간에 한분씩 들어오셔서 '느헤미야52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실에서만 외치는 영광,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나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와 교회와 열방을 원형으로 보고 연합할 때, 정말 주님 수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연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처럼 교회와 열방과 연합할 때, 진짜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만 외치고 싶었던 복음의 영광을 교회와 열방까지 터트리신 주님. 나의 단단한 선입견의 오류를 들춰내시고 자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흘러 보내셔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열방을 덮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복이 열방 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최한별 자매

원어로 읽는 말씀의 샘 4

“아침, 동이 터오는 새벽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 27:4)

히브리어 BDB 사전을 보면 아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보케르”(boqer)의 일차적 의미는 “어두움을 가르다, 쪼개다”이다. 아랍어를 보면 쪼개다, 열어젖히다(rip)의 의미가 들어있다.

아침이란 의미는 바로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다. 어둠을 쪼개고 어두움을 열어젖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 장엄한 순간(a point of time)을,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과 그 흥분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을 것이다.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이고 여기서 의미가 더 발전된다. 이 아침은 BDB 사전 동사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묻다(inquire), 찾다(seek)의 의미로 발전되어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의미로 발전되어 나아간다. 시 27:1-6절이 대표적이다. 처음 나오는 동사 '청하였다' 그의 평생에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그 분의 성전에서 찾고(seek), 묻는(inquire) 행위를 갈망한다. 여기 문맥에서, 청하고 기대하고 찾고 묻는 동사 행위는 모두가 다 “기도용어”다. 마지막 단어, “사모하게한다”(endear)는, 함께 가는 원리에 의해, “기도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문맥에 더 알맞다. 아침이란 단어와 동일 어원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기도하리라” 그렇다. “아침”이란 의미는 “어둠을 쪼개고, 어두움을 열어젖히고 동이 터오는 새벽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편 55:17절처럼, 특별히 탄식하는 기도로 맞이하는 시간의 정점”이다.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반짝여주시는 것이다”(twinkle= shine). 영어 단어 morn(시어), morning 은, 옛 영어(old English) morgen, morg - “twinkle”의 의미다.

김명호 목사(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소장)

따라읽는 말씀기도(25) - 하나님의 전쟁으로의 초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군사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일어나자.

이 코너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후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다. 그에게는 부와 귀와 명예가 있었다.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안주할 수도 있었다. 이미 백 수십 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은 그저 옛날 얘기, 조상들의 얘기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세상 나라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황폐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붙들고 우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일이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느 1:3-7)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 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1.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도 좋은 군사로 다닐 수 없다(딤후 2:4).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화합된 자만이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2.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은 느헤미야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앞세워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초대받은 교회들이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일어서도록 기도하자.

<출처: 기도24·365 제공>



다음 세대 스토리 - 현장취재

“청소년들, 주님의 군사로 믿음의 선한싸움을 싸운다”

11월 12일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 서다'



“주님을 따를 때,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할 것이다”

육질이 난무하고 학교교육이 무너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옷입은 기독교학생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이같은 심정으로 오는 11월 12일 열릴 청소년문화복음 집회 '다음세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를 위한 준비모임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에 위치한 문광교회(담임 최종덕 목사)에서 열렸다.

모임을 준비한 집회진행팀은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이기에 참석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의 인간적인 예측은 그러나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 청소년 53명을 비롯 십김이까지 총 75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향한 갈망함으로 전국 각지에서 오직 부르신 주님만을 기대하며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한 한의도 전도사(경일교회)

는 “어떤 자격도 아닌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 중인 지금 이 때,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한 전도사는 “다윗과 같이 주권자인 주님만 기억하며 철저히 그 분만을 따를 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나 부르신 주께 태도를 정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자”고 도전했다.

말씀이 선포된 후에 7-8명이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기도를 진행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복음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기도 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오는 11월 12일 서울 충신감리교회(담임목사 배철희)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세대 집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청소년들을 주님의 군사로 여기고 지역별 사령관을 세워 이들을 중심으로 기도모임을 갖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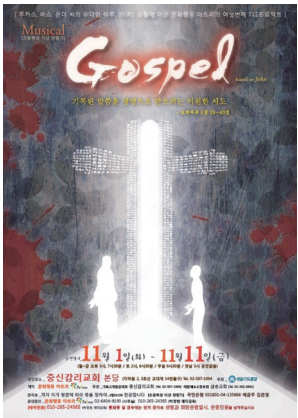
경기 광주 지역 사령관 김용석(17) 형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났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 사령관 어희주(19) 자매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번 모임에 참여했다”며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후 부딪쳐서 넘어진 채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살아가고자 일어나 걷는 자가 되길 바란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주의 청소년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나섰다.

한편, 이들은 둘째 날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방문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은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모임 관계자는 말했다.

경기도 광주=김보영 기자

문화행동 아트리, 뮤지컬 가스펠 (Gospel)로 복음 선포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충신감리교회(서울 교대역)



라는 슬로건으로 열하루 동안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행동 아트리의 이번 1.1.1 프로젝트는 루카스, 베스,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의(依), 스틸에 이어 6번째이다.

충신감리교회와 삼송장로교회에서 주관하며 복음기도동맹에서 주최한 이번 1.1.1 프로젝트 가스펠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능 하며 첫날(11/1)에는 오후 3시 공연이 없다. 공연시간은 평일(오후 3시, 7시 30분), 토요일(오후 2시, 6시 30분), 주일(오후 6시 30분)마다 조금씩 다르다.

관람 희망자는 관람일 3일 전까지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관람료는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행 11:29) 헌금으로 하면 된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1601-04-133666 (김관영). ☎ 010-265-24365 (통화 중일 때는 문자로 성함, 희망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남기면 된다).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요한복음을 극화한 뮤지컬 '가스펠'을 통해 복음을 선포한다. 공연장소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 위치한 충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 목사). 매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한국으로 비전트립 이후 새벽기도 모임 가져

독일 청년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발원지 독일의 기독교청년들이 한국의 영적부흥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벤치마킹하며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르틴 루터의 고향인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지역의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것을 구호가 아닌 실천적 삶으로 살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여, 독일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비전트립팀을 구성해 한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 한국 교회에서 보고 배운 새벽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최근 한국을 찾은 구동독 지역 청년들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세운 동안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하고, 이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청년들이 보고싶다는 비무장



지대(DMZ)와 판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들 독일 청년들은 2008년에도 비전트립으로 한국을 방문, 동안교회와 온누리교회 등의 청년들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믿음의 교제와 교류를 통해 서로가 경험하고 배운 믿음의 순종을 나눠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복음의 영광 **느헤미야52 기도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 출간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는 이 책자는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이다.

구입문의 ☎ 070-7417-0408~9 총192쪽 | 복음과기도미디어 | 값6,000원 | 2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메시지

김용의 선교사 설교 CD,DVD,테이프 제작,보급

복음과기도미디어는 김용의 선교사의 각종 메시지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모임의 메시지와 2007년의 JUMP부산 집회, 은혜한인교회 집회 등이 있습니다. CD는 각 4,000원, 테이프는 각 2,000원입니다. 배송료는 2,500원. 2만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문의 및 주문: 010-6326-4641, 070-7417-0408~9
gnmedia@gnmedia.org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승이]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아이엠 샘』

“아빠가 아닌 다른 아빠는 싫어요”



주연을 맡은 손 펜과 다코타 패닝 두 배우의 유명세와 ‘아이엠 샘’이라는 독특한 제목. 아카데미 노미네이트와 각종 수상작으로 잘 알려진 영화. 큰 기대감 없이 부녀지간의 사랑을 그린 가족영화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았으나 깊은 여운이 남아 몇 번을 다시 본 영화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 샘의 딸에 대한 사랑을 보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존재로, 생명으로, 본능으로, 운명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다. 딸 루시는,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 것 없이 보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무시했던 지난날 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줄거리는 이렇다. 7세 지적 수준의 장애를 가진 샘은 갈 곳 없는 레베카라는 여자를 집으로 들인 후 아빠가 된다. 그러나 그녀는 딸을 낳자마자 떠났고 홀로 남겨진 샘은 좌충우돌, 갓난 아기 루시를 키우게 된다. 외출공포증이 있는 이웃집 애니, 같은 장애를 가진 샘의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루시는 밝고 건강히 자란다. 그들의 매일은 그들만의 행복으로 날마다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7년이 지나 학교에 가게 된 루시는 다른 아이들의 아빠와 샘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아빠의 지능보다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는 것도 공부 하는 것도 기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딸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샘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에 샘이 루시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후 루시는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게 되고, 너무 사랑하는 두 사람은 물리적인 제도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 주 2회의 만남만 허락이 되고, 그 만남도 감시하에 이루어진다.

실의에 빠진 샘은 장애인 친구들의 충고대로 법정소송을 하기로 결정 한다. 잘나가는 엘리트 변호사 리타를 만나러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다. 자존심 때문에 얼떨결에 무료변호를 맡게 된 리타는 오로지 딸을 되찾기 위해 초점이 집중된 샘의 모습을 보며 인정하고 싶지 않던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절망을 고백하고 변화됨을 경험한다.

그러나 재판은 모든 면에서 샘에게 불리했다. 그가 좋은 아빠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그나마 유일하게 증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애니는 외출공포증이 있었다. 그러나 샘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한 애니는 증언대에 서게 되지만 결국 상대 변호사의 추궁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세상은 그를 무능력한 장애인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루시는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고, 딸을 가까이에서 라도 보기위해 샘은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한다. 루시는 아빠가 그리워 밤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창문을 넘고 밤길을 걸어 아빠 품으로 들어가 잠이 든다.

“아빠 아니면 아무도 안된다는 말 들었죠? 아빠가 아닌 다른 아빠는 싫어요.”

면회를 감시하는 복지사들을 향하여

외치는 루시의 고백이다. 부모 잃어버린 미아에겐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어도 진짜 부모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정말 위하는 것 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죄로 인하여 주님과 단절되어 황폐된 우리의 모습,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른 심령의 해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아이는 아빠를 향한 최상의 사랑을 “노래 가사처럼 사랑해.”라는 비틀즈의 노래를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0,19)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결국 극단적 방법인 아들 내어주고 되찾은 십자가 사랑. 끝없이 배신하고 끝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정말 바보다. 오로지 잃은 자식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이 전부를 걸어버리신 주님. 그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호세아의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열방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그날. 그날을 꿈꾸며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다시복음앞에 외치며 고백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드라마 | 미국 | 제시벨슨 감독 | 132분 | 전체 관람가 | 2001)

민연희 선교사

후원자 명단

(2011년 9월 28일 ~ 10월 13일, 가나다 순)

△개인

김남분 김수화 문금순 민용기 박경희 박태일 배용구 염정원 유자인 윤석주 이란영 이민자 이설옥 이영미 이재아 정영훈 지병용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교회 기쁜우리교회 나무와씨앗교회 높은뜻푸른교회 성도교회 청지기교회 순회선교단 천보산민족기도원

△헌물 ... 익명의 동역자가 복음기도신문을 보급하는 보발군을 위해 상당량의 백팩을 기증 하셨습니다. 모든 보발군에게 전달할 수는 없어,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배포 했습니다. 가방에 신문을 넣어 열심히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나눔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 16일(금)

장소 선한목자교회(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강사 권영조 선교사(사이판복음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류응렬 교수(총신신학대학원),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박영철 교수(침례신학대학원), 백부장 선교사(Y국), 송신호 목사(한국제자훈련원), 송천호 목사(미국 월드비전), 안정규 선교사(케냐),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명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 '가나다순', ※ 예배리턴'(return), 뮤지컬'가스펠'(Gospel), 그 외 복음과 기도의 증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세아6:1)

‘다시 복음 앞에’

RETURN to the GOSPEL
‘오직복음으로’

[문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70-7447-0301, 070-7417-0815, 010-9440-4365,
010-4167-0301, 010-4167-0374 / E-mail: gpall@paran.com
website: www.gospelprayer.net (웹사이트에서 참가자 선착순 접수중)

[주최,주관] 복음기도동맹

[후원] 갓피플, 기도24365, 리턴, 문화행동아트리,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천보산민족기도원, 총신감리교회, T&R미션, WEC 「가나다순」
*복음기도동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651001-01-319982 국민은행, 조원순(복음기도동맹)